

## 복음에만 계시된 하나님의 의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 1 : 17 □□□□ □□□□ □□ □□□□ □□□□ □□□ □□□

□□□ □□□ □ □□ □□□ □□□□ □□□□ □□□ □□ □□□□

17.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 사람은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의로 구원을 얻든지 결정해야 하고, 자의든 타의든 범신론적 구원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초월신적 구원을 택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범신론적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기독교적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남의 의로 의를 얻어 초월신적 구원의 길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신론적 구원과 초월신적 구원에 대해 약간의 공부를 하고 가십시오.

범신론적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선행을 통하여 고양하고 계발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 아닌, 범신과의 일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 과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범신론적 구원입니다.

반대로 초월신적 구원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멀고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신인이신 중보자의 의의 전가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구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의의 성격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의 정의가 무엇이나 하는 것부터 정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 1 : 17 □□□□ “□□□□ □”□ □□□□ □□□□ □□□ □□□  
□□□ □□□ □ □□ □□□ □□□□ □□□□ □□□ □□ □□□□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계시됩니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함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의 구원관은 범신론적 구원관이라, 자기의로 구원을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 :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Isaiah 5:16 (NKJV)**

<sup>16</sup>But the LORD of hosts shall be exalted in judgment, And God who is holy shall be hallowed in righteousness.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합니다. 거룩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적 성격과 비윤리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적 성격은 하나님의 무한성, 절대성, 완전성, 영원성등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윤리적 성격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여 죄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여 피조물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가진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초월성에 대하여

욥기 15 : 14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욥기 15 : 15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기 15 : 16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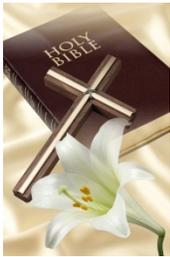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여 피조물의 의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현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로는 거룩으로 피조물의 의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도달해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자 유대인들은 불가능의 벽 앞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웠던 이방인들은 모두 범신론적 구원관으로 떨어졌습니다

## 2. 전가(Imputation)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피조물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전가이며, 전가를 위한 조건이 믿음이며, 이 믿음에 의한 전가는 창세기때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가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고, 전가에 의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믿음과 전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sup>22</sup>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 (KJV)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4:22 입니다.

impute: λογίζομαι (Greek, logizomai) 전가시키다, 여겨주다

righteousness : δικαιοσύνη(dikaiosynē) 의라는 말인데 법적으로 의로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braham deposited his faith with God, and God imputed or credited Abraham's faith as righteousness<sup>1</sup>.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deposit 를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credit 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오늘날 위기 신학에서는 전가의 개념을 부정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죄적 상태에 있습니다. 의의 전가를 받기 전에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죄용서를 받아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칭의의 두 국면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4 : 25   □□□ □□ □□□□ □□□ □□□□ □□ □□ □□□  
□□□□□□ □□□ □□□□□□□□

### 3. 복음에만 계시된 하나님의 의

다음에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만 계시되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된 곳은 복음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고 계시된 곳은 복음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sup>1</sup> Practical word study “impute”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함을 주시고, 저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시어 의롭다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삼위일체의 제 3 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아무 감소없이, 변형없이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만 계시된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계시됩니다. 우리 롬 1:17 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 1 : 17 □□□□ “□□□□ □”□ □□□□ □□□□ □□□ □□□  
□□□ □□□ □ □□ □□□ □□□□ □□□□ □□□ □□ □□□□



#### 4.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만 온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의 길은 자기의 공로에 의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행에 의해 구원을 받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 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하여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보다 약 1000 년 전에 다윗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 4 : 5 □□ □□□□□□ □□□ □□□ □□ □□□ □□□ □□  
□□ □□□□ □□ □□□ □□ □□□□□□

<sup>5</sup> But to him that worketh not, but believeth on him that justifieth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for righteousness.

□□□ 4 : 6 □□ □□ □□ □□□□ □□ □□□□ □□ □□□□  
□□□ □□□ □□□ □□□□

<sup>6</sup> Even as David also describeth the blessedness of the man, unto whom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 4 : 7 □ □□□ □□□□ □□ □ □□ □□□□□ □□ □□ □□ □□

<sup>7</sup> Saying, Blessed are they whose iniquities are forgiven, and whose sins are covered.

□□□ 4 : 8 □□□ □ □□ □□□ □□□□ □□□ □□ □□□ □□ □□□□

<sup>8</sup> Blessed is the man to whom the Lord will not impute sin.

행함이 아닌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은하나님의 단순한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인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온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 나의 죄를 전가 받아 돌아 가시고, 다시 살아 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시어 의롭다 여겨 주신 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로마서 3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3 : 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

복음에 계시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 전거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 4 : 25 □□□ □□ □□□□ □□□ □□□□ □□ □□ □□□  
□□□□□□ □□□ □□□□□□□□

□□□ □□□□ □□

로마서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4 : 17 □□□□ □□ □□ □□ □□□ □□□□ □□□ □□□  
□□□ □□ □□□ □□□□ □□ □□ □□□□ □□ □□ □□ □ □□  
□□□□ □□□□

□□□ 4 : 18 □□□□□ □□ □ □□ □□ □□□ □□□□ □□ □  
□□□ □□□□□ □□ □□□□ □□ □□□ □□□ □□ □□ □□□  
□□□□

18 Who against hope believed in hope, that he might beco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was spoken, So shall thy seed be.

□□□ 4 : 19 □□ □□□ □□ □□ □□ □□ □ □□□ □□□ □□  
□□ □ □□□ □□□ □□□ □□□□□ □□□□□

19 And being not weak in faith, he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an hundred years old, neither yet the deadness of Sarahs womb:

□□□ 4 : 20 □□□ □□ □□□□ □□□ □□□ □□ □□□

□□□□□□ □□□□ □□□ □□□

20 He staggered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 4 : 21 □□□□ □□□ □□ □□ □□□ □□ □□□□□□

21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 4 : 22 □□□□ □□□ □□□ □□ □□□□□□

□□□ 5 : 9 □□□ □□ □□□ □ □□ □□□ □□□ □□□

□□□□ □□ □□ □□□□ □□□□□□ □□□ □□ □□□

□□□□ 1 : 7 □□□ □□□□ □□□ □□ □□□ □□□□ □□ □□

□□ □□□□ □□ □ □ □□□ □□□□

<sup>9</sup>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 5 : 10 □ □□□ □□ □□□ □□ □ □□□ □□□□□

□□□□ □□□□□ □□□ □□□□□□ □□□ □□□□ □□ □□

□□□□ □□□ □□□ □□ □□□□